

# “국내에서는 아직도 中東사태의 심각성을 잘 못느끼는 것 같아”

대담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지난** 8월 2일 상오 8시 이라크는 10만명의 병력과 6백여대의 전차를 이끌고 쿠웨이트를 침공, 약 6시간만에 쿠웨이트시를 점령하고 거의 하루만에 유전지대를 포함한 쿠웨이트 전역을 제압했다. 이로 인한 중동위기는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제시장에 심각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업무협의차 일시 귀국한 權燦 주이라크공사를 만나 현지의 표정을 알아본다.



-그동안 중동위기의 핵심부에서 교민철수등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았을 줄 믿는데 현지 공관의 사정은.....

『현재 쿠웨이트공관은 완전히 철수했고, 이라크대사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침공전에 이와같은 무력도발의 조짐은 없었는지.....

『쿠웨이트의 기름도굴문제를 둘러싸고 이라크와 쿠웨이트간의 직접회담등 외교적은 움직임은 있었으나, 바그다드에서 이라크의 침공감세는

전혀 느낄수가 없었습니다. 7월 3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열린 이라크·쿠웨이트 회담에 이라크에서는 이브라힘 혁명평의회 부의장겸 부수장이, 쿠웨이트측에서는 사이드 황태자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라크는 배상금으로 21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쿠웨이트측은 24억달러를 제의했지요. 이브라힘부의장은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 결국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8월 1일 이브라힘 부의

장으로부터 회담결과를 보고받은 후세인 대통령은 즉각 비상각의와 바스당 간부회의를 소집, 자정까지 마라톤회의를 연 끝에 결국 쿠웨이트 침공을 결정하고 8월 2일 자정을 기해 무력침공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라크는 쿠웨이트에 침공하면서 對이라크 강경파인 사바국왕과 수상, 외상등 3명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바국왕은 그날밤 쿠웨이트시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소도시의 왕궁에 머물다가 이라크의 침공소식을 듣고 재빨리 사우디아라비아로 탈출했고, 수상과 외상도 모두 탈출에 성공했지요. 국방장관은 이라크침공군과 끝까지 대항하여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직후 바그다드의 현지표정과 움직임은.....

『침공 당일 바그다드 시내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도 전쟁이 난지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시가지에 무장한 군인들이 많이 보이고 탱크가 공공건물에 배치되는 것 외에는 전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

니다. 저희는 외신보도를 통해 비로소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실을 알았습니다. 그후 1주일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시내는 지극히 평온했고,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며 비즈니스도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바그다드 주재 우리 공관은 통신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우선 비상연락망을 열어 본국 및 인접주요공관과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쿠웨이트 사태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애로는 전쟁 시작후 쿠웨이트공관의 텔렉스가 두절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비상연락망을 가동시켜 확인한 결과 그때까지 쿠웨이트공관은 모두 무사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에서 현대건설 근로자 3명이 이라크점령군에서 체포되어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아무리 해도 소제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지공관을 통해 이라크점령군당국과 면담한 결과 이들이 이라크군에 체포되어 바그다드로 이송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외무성과 교섭을 벌여 이들 근로자를 무사히 석방시켰습니다. 아마 이라크정부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로 외국인중 가장 먼저 석방한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1천3백여명의 쿠웨이트·이라크교민중에서 1차로 1천1백50명을 전쟁지역과 사막을 횡단하여 철수시키는 일입니다. 쿠웨이트에서 바그다드를 거쳐 요르단의 수도 암만까지는 1천6백km의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 다. 이들이 그 먼 길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

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공관에서 교민들을 철수시키려니까 이라크 외무성에서 출국비자를 안내주는 거예요. 외무성으로 달려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교섭을 벌여 1백50여명의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전쟁 개시후 우리에게 대한 이라크 외무성의 태도는 의외로 친절했습니다. 원래 이라크인들은 무뚝뚝하고



**한마디로 말해 중동사태의 전망은 비관적이고 심각합니다. 그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또 양측의 고집이 너무 스트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동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력충돌이 벌어질 경우 파피의 충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만하며,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스타일인데 전쟁 직후에는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마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나빠진 이미지를 개선해 보려는 제스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8월 23일 저녁 6시에 제3진 교민 1백여명을 26대의 자동차로 요르단으로 출발시킨후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들으니 그날 밤 요르단국경이

폐쇄되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녀자와 아이들이 물도 없고 휴게소도 없는 황막한 사막속에서 갇힐 것을 생각하니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떠날때 3일분의 김밥과 물통을 준비하여 보냈지만, 사막에 갇힌다면 이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라크외무성으로 달려 갔지요. 『우리 공관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경경비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우리 공관가족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국경에 연락을 해주더군요. 우리는 즉각 요르단대사관에 연락하여 요르단정부와 교섭하여 교민들이 무사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요르단대사관에서는 버스로 국경까지 가서 긴급수송을 도왔습니다. 이른바 『새벽작전』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이라크의 경제사정은……

『과거 강대국이 약소국에 가한 경제제재가 성공한 예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라크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경제봉쇄로 모든 수출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라크는 현재 고통을 겪고 있으나, 과연 완전히 성공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지난 1971년에 이라크가 석유국유화조치를 단행했을때 구미강대국들이 對이라크 경제제제조치를 단행했으나 8개월만에 해제함으로써 실패로 끝난 전례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라크 재정수입의 95%가 원유수출에 의한 석유收入이기 때문에 경제봉쇄로 이라크가 입는 피해도 크지만, 석유수입국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라크국민은 외부의 도전

에 강한 민족입니다. 이 정도의 압력이나 도전은 충분히 감내해 낼 수 있습니다. 과거 수없는 외침속에서 살아난 민족이기 때문에 외부압력에 강하며, 뱀을수록 살아나는 잡초처럼 강인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랍세계에 이런 얘기가 있지요. 즉 알라신이 아랍세계를 창조하면서 각나라에 한가지씩 특징을 주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富의 상징인 석유를 주었고, 요르단에는 지혜, 그리고 이라크에는 자부심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라크민족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중동사태가 결국 무력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경제 봉쇄 이후 이라크의 석유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라크의 석유수출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터키와 홍해 경유의 파이프라인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최근에 이란이 이라크 원유를 사주겠다고 제의한 것도 이란의 국익에 기초한 정치협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란·이라크전쟁에 패배한 이란으로서는 이라크가 중동의 패자로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동세계의 냉엄한 정치현실이지요.』

—최근 이라크의 석유산업현황은……

『이라크는 이란·이라크전쟁을 치루는 가운데에서도 2개 부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했습니다. 즉 석유산업과 군수산업입니다. 이라크는 전쟁중에도 역점사업으로 석유개발을 꾸준히 추진했으며,

정유공장을 건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라크의 석유산업은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 올려 놓았습니다. 최근 이라크는 엄청난 양의 석유 추가확인매장량을 발표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라크인들의 석유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알라신으로부터 비옥한 메소포타미아평야 외에 석유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라크는 1천미터 지하에 석유의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석유의 바다 위에 떠있는 나라가 곧 이라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라크의 석유자원은 주로 쿠웨이트와의 접경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데 탐사하는 과정에서 쿠웨이트가 먼저 캐가는 것을 발견하고 후세인대통령이 노발대발하여 쿠웨이트를 침공했다는 얘기도 있지요.』

—중동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2억2천만달러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고, 이에 대해 국내의 여론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데……

『중동사태에 따른 분담금은 정부의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日本은 40억달러의 분담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에 비해 2억2천만달러는 우리나라의 국력규모에 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극히 일부이지만 중동사태 분담금을 부담한 것은 국제정치외교에 당당히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국력과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민의 한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동사태는 和戰 갈림길에서 혼미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데, 중동사태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한마디로 말해 비관적이고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양쪽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양쪽의 고집이 너무 스트롱하기 때문이지요.

이라크의 쿠웨이트합병에 대해 美國은「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라크측으로서는 쿠웨이트는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합병은 古土회복이라는 게 이라크의 기본적인 인식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쿠웨이트는 아랍 유목민족이 아라비아반도의 내륙으로부터 이주하여 현재의 땅에 정착한 것이 18세기로 그중에서 현재의 토후인 사바家가 나타나 지배권을 장악하고 천연의 항구인 쿠웨이트만을 통해 해상무역에 종사했습니다. 18세기 후반 내륙의 와하브왕국의 압박을 받아 英國 동인도회사에 보호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동사에 기지를 제공했지요. 쿠웨이트는 한때 터키를 종주국으로 하여 바스라州 지사의 지배하에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라크가 쿠웨이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1899년에 쿠웨이트는 英國과 조약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라크는 16세기 이래 오스만터키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터키가 독일측에 가담했기 때문에 제1차 대전후 英國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1920년에 英國의 신탁통치하에서 하심家의

파이잘을 왕위에 앉혀 이라크 왕국을 세웠지요. 1930년에는 英國과 조약을 체결하고 英國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英國에 공군기지를 제공하고 영국군의 자유통행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라크는 독립했습니다. 이때 이라크는 쿠웨이트의 영유를 요구했으나, 英國은 이라크가 페르시아만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원치 않아 쿠웨이트지역을 이라크에서 분리시키고 말았습니다. 1961년 6월 쿠웨이트는 英國과 협정을 통해 독립했는데 이때도 이라크는 쿠웨이트의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이라크는 페르시아만 입구의 쿠웨이트령인 부비안섬, 와르바섬의 양도를 요구하고 무력행사 움직임을 보였으나 英國과 아랍연맹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이라크가 양보했습니다. 1963년 2월 바스당이 집권하자 쿠웨이트는 이라크에 8천5백만달러를 제공하고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국경선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중동사태에 앞서 이라크가 이 두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편 英國에 뒤를 이어 中東지역에 들어온 美國은 中東석유에 민감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中東지역에 있어서 美國의 전략축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이집트의 카이로로서 여기에 도전이 오면 美國은 좌시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中東정치는 세력균형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부터 英國에 뒤이어 美國이 中東지역에 들어오면서 美國의 주도하에 이 지역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美國은 과거에는 테헤란-카이로-리야드

에 전략축을 두어 中東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했으나 이란의 팔레비왕정이 붕괴되고 호메이니옹이 등장하면서 결국 美國은 이란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中東지역의 세력균형 속에는 복잡한 갈등구조가 있습니다. 이합집산의 갈등구조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지요. 현재 美國이 中東외교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복잡한 내부갈등구조 때문입니다.

제가 中東사태가 비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양자의 이해와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정면대결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中東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것은 정면대결 후의 파괴의 충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中東사태가 무력충돌로 확대될 경우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60달러 내지 100달러까지 폭등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것입니다.』

### —中東위기에 대한 현지 분위기와 귀국한후 국내분위기에서 받는 다른 느낌이 있다면……

『현재 中東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놀랍게도 국내에서는 아직 강건너 불처럼 그 심각성을 잘 못느끼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만약 中東사태가 악화될 경우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칠지 제대로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中東정치의 복잡성과 中東석유의 중요성에 대해 별로 피부로 느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나와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흥청망청하는 것 같아요. 석유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차가 홍수처럼 밀려다니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과연 우리가 美國만큼의 경제력을 갖추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내실있는 소비 패턴인지 의아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장기적 관점에서 이라크와의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이라크는 우리나라의 좋은 수출파트너였습니다. 우리나라는 對이라크무역에 있어서 항상 흑자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라크는 경제성장의 모형을 우리나라에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또 이라크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中東지역에서 1천km이상의 강이 흐르는 나라는 이라크 외에는 없습니다. 이라크에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사람의 다리처럼 남쪽으로 흐르는 가운데 그 사이에는 폭 1백km의 광대한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옥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농업은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한때는 中東제국에 농산물을 수출하기도 했지요. 또 겨울에는 강수량이 많고 숲이 우거져 中東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조건이 좋은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를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요. 반드시 석유절약을 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다져놓은 북방외교가 연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가운데 국민들은 흥분과 유포리아에 들떠 있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중동에는 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